“스타 응원, 이젠 ‘생명나눔’ 실천으로”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

6. 팬들의 생명나눔 기부 행렬



4위	정동원	130만원 기부
5위	영탁	30만원 기부
6위	김희재	30만원 기부
7위	최수호	20만원 기부
8위	최상	10만원 기부

생명나눔실천본부에 2020년부터 소아암 어린이돕기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는 ‘스타투표 리매치’는 팬들이 가수 이름으로 기금을 적립 후원금을 보시할 수 있는 앱이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팬들이 스타들에게 사랑과 응원을 표현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음반을 구매하거나 현장을 따라다녔다면 현재는 기부와 봉사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으로 팬심을 표하고 있는 것. 과거에는 연예인들의 개인적인 기부사례가 미담으로 소개됐다면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위해 모인 팬들의 집합인 팬덤 차원의 기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생일, 데뷔일 등 특정 날짜에 맞춰 성금 릴레이를 펼치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봉사에 나서는 등 팬들의 기부가 트렌드로 여겨질 만큼 팬덤 나눔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를 통해 2020년부터 꾸준히 팬덤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스타투표 리매치’는 가수를 응원하면서 선행까지 할 수 있는 앱이다. ‘미스터트롯’과 ‘미스트롯2’ ‘내일은 국민가수’ 등에 출연했던 가수의 팬들이 투표하고 응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한다. 팬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일정 득표수 이상이 됐을 때 시즌이 종료되고 결과에 따라 투표 받은 가수 이름으로 후원한다.

100만 표 당 10만 원이 가수 이름으로 생명나눔실천본부에 기부되며 현재 3만여 명이 앱을 통해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스타를 향한 팬들의 성숙해지는 응원 방법이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다.

‘스타투표 리매치’ 앱을 개발한 이현진 대표는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앱을 통해 모인 후원금을 꾸준히 생명나눔실천본부에 기부해왔다. 현재까지 21회에 걸쳐 기부한 후원금이 1억 5700만 원에 달한다. 이현진 대표는 2020년 첫 기부를 시작으로 2021년 7회, 2022년 8회 등 기부 회수를 꾸준히 늘려왔다. 2023년에도 8월 현재까지 5회 후원한 상태다.



배수지 씨 팬클럽 ‘배꽃마을’ 등은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실시하는 다양한 행사에 동참한다.

스타에 던진 한 표 모여 기부
사회에 따뜻한 온기 불어넣어
팬들 자발적 마음 기부행렬로

이현진 대표는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공을 높이 평가받아 생명나눔실천본부가 한 해동안 생명나눔 정신을 실천한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하는 ‘생명나눔대상’에서 2022년 나눔상을 받기도 했다. 앞서 2021년에는 산사음악회 후원부분 공헌자로 표창받았다.

‘스타투표 리매치’의 기부가 의미 있는 이유는 스타를 응원하는 마음을 사회를 위한 기부로 보여준다는 것과 팬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은 마음이라는 점에서다. 성별, 나이, 직업은 모두 다르지만 같은 연예인을 응원하는 마음 하나로 유대감이 형성돼 개인 차원에서는 낯설고 힘들었던 기부가 함께하니 즐겁고 뿌듯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팬들의 따스한 마음을 알고 스타도 함께 동참하면서 선순환적인 기부행렬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다.

스타와 팬이 함께하는 선행에는 배우 겸 가수 배수지 씨를 빼놓을 수 없다.

2014년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에 직접 참여, 숭고한 생명나눔 정신을 실천한 배수지 씨는 2016년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에 5억 원 이상을 기부했다. 난치병 어린이뿐 아니라 긴급 환자 발생 시 남몰래 수술비를 지원했고 저소득층에 생필품을 전달하는데도 적극적이다. 2017~2018년에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생명나눔실천본부에 후원금을 전달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도 했다.

배수지 씨에 선행에 감동받은 팬들도 적극적으로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의 팬사이트인 ‘DC갤러리 수지’ ‘배꽃마을’은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실시하는 다양한 행사에 생일맞이 기부와 연말 불우이웃돕기 등으로 동참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측은 “팬덤 기부 문화는 기부의 진정성도 지키면서 색다른 방식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면서 “선한 영향력으로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점차 성장하고 확장돼 가는 모임 · 단체 기부 트렌드에 발맞춰 생명나눔도 모연 브랜드를 다양하게 확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팬클럽이 나눔 문화 확산에 참여해주길 바라며 생명나눔 희망등록 캠페인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스타 응원하고 기부하며 보람 느끼는 앱 발원”

이현진 ‘스타투표 리매치’ 앱 대표

“스님이 이사장으로 계셨기에 더욱 믿음이 갔죠.”

이현진 스타투표 리매치 대표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인연은 2020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소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후원 등에 관심이 많았던 이현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칠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인터넷을 통해 기부단체를 찾던 중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활동을 소개한 기사를 접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부터 환자 지원, 불우이웃돕기, 자살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눈에 띄었다. 대규모 단체가 아님에도 사회에 꼭 필요한 활동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다.

검색을 좀 더 해보니 가수이자 배우인 배수지 씨가 수년 전부터 꾸준히 후원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다른 유명 연예인들이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불자는 아니지만, 스님이 이사장으로 계신 것에도 믿음과 신뢰가 갔다. 본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기부의 뜻을 전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측에서도 매우 반가운 일이었다.

이현진 대표는 2020년 11월, 트롯 투표 리매치 앱 시즌 1이 종료됨과 동시에 후원을 시작했다. 올해 8월 현재 기부 누적금액이 벌써 1억 5700여 만원에 달한다.



이현진 대표는 ‘2022년 생명나눔 대상’에서 나눔상을 받았다.

아직은 1인 기업이기에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마케팅, 게다가 후원까지 하는 일이 힘겨울 법도 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도 하지만, 돈을 벌면서 보람있는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앱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아지는 것은 물론, 영향력 있는 가수들이 직접 기부금도 전달할 수 있는 앱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 최근 앱 이름을 ‘트롯 투표 리매치’에서 ‘스타투표 리매치’로 변경한 것도 영향력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바램이 담겼다.

이 대표는 “팬으로 즐겁게 응원하고 기부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동기부여도 되는 앱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풍성한 행사로 생명나눔 실천한다

한 눈에 보는 생명나눔 하반기 행사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대하고 생명존중의 가치를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3여 년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일상이 재개되면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부처님 자비사상 전파와 법인 사업 홍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매년 남양주 불암사 경내에 국화가 만발하면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올해 15회 차를 맞은 음악회는 10월 21일로 예정됐다. 불암사 산사음악회는 문화공연과 함께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아름다운 무대로 꾸며진다. 트로트와 발라드, 댄스 가수들이 총출동해 신명나는 음악무대를 선사하고 치료비와 장학금 전달식도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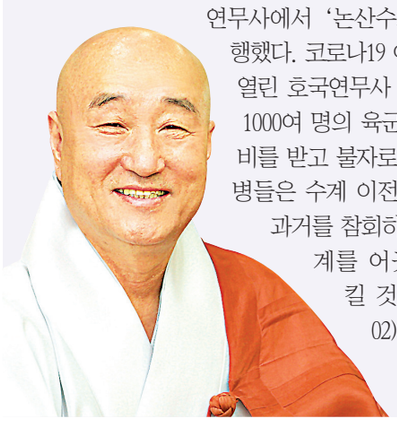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12월 1일에는 서울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제14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음악회에서는 난치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우와 이식대기자가 치료비 모금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따듯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행사는 환자치료비 전달식으로 막을 올리며 특히 올 한 해 생명나눔 활성화에 공로가 큰 개인 및 단체를 치하하는 생명나눔 대상 시상식이 진행된다. 생명나눔 대상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더 밝고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된 상이다. 지난해에는 윤근향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가 대상을 수상했다. 음악회에서는 생명나눔 산하단체인 마하무용단과 국악가수들의 열창, 태권도 시범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가을 산사음악회로 감성 가득
겨울 정나누기로 따뜻함 전해

서울 달동네와 영구임대 아파트 인근에서 진행되는 따뜻한 정나누기 행사는 12월 5일 진행될 예정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수년 전부터 겨울이면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과 의정부 일대 등 낙후지역을 후원해왔다. 이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한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들이 직접 나서 솜이불뿐 아니라 김치와 라면 등 기초생활용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원할 계획이다.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다채로운 활동으로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면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기부 문화가 불교계를 넘어 모든 국민에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9월 2일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논산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열린 호국연무사 수계법회에는 1000여 명의 육군 장병들이 연비를 받고 불자로 거듭났다. 장병들은 수계 이전 오계를 어긴 과거를 참회하고 앞으로 오계를 어긋남 없이 지킬 것을 서원했다.



02)734-8050

임은호 기자

